

중동발 충격 딛고 광주·전남 상장사 시총 회복

4월 40조5222억원 5.5% ↑...거래대금도 늘어

한전·한전KPS·한국첨단소재·대한조선 두각

중동 전쟁 여파로 20% 넘게 급감한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소폭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4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상장법인 39개사(유가증권시장 16개·코스닥 시장 23개)의 시가총액은 40조5222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1013억원(5.5%)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37조3083억원으로 전월 대비 4.9% (1조7565억원) 늘어나고, 코스닥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3조2139억원으로 12.0% (3448억원) 증가했다.

지역 시가총액은 한국전력이 견인하며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전력 시가총액은 27조9575억원으로 전월 (26조7378억원) 대비 1조2197억원(4.6% ↑)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에서는 한국첨단소재가 지난 3월 531억원에서 한 달 만에 1547억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지역별		
		광주	전남	합계
2026. 3월말	47,299,184	38,122	346,087	384,209
2026. 4월말	60,581,462	40,462	364,760	405,222
변동액(률)	13,282,278(28.1)	2,340(6.1)	18,673(5.4)	21,013(5.5)

자료제공=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

원으로 1016억원(191.1%)이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첨단소재는 1999년 설립돼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광통신용 광소자 전문기업이다.

회사는 독자 개발한 평판형 광회로(PLC)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용·통

신용 AWG와 스플리터 등 광통신 핵심 부품을 개발·제조·판매하고 있다. 엔비디아 렌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GTC 2026'에서 광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물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3월 한국첨단소재는 한국 전자통신연구원과 '200Gbs 초고속 신호 전송을 위한 임피던스 정합 실리콘 인터포저 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에 매수세가 몰렸다.

다른 상장사들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대부분 빨간불을 보였던 지난 3월과는 다르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호에 이치터와 금호타이어 등 2곳, 코스닥 시장에서는 DH오트웨어, 박셀바이오, 서산, 에이전트AI 등 4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시가총액 증가액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에서 한전에 이어 한전KPS가 3015억원(13.2% ↑) 증가한 2조7990억원, 대한조선이 1464억원(4.4% ↑) 증가한 3조4481

억원 순이었다. 코스닥에서는 한국첨단소재를 선두로 오이솔루션과 덕양에너젠도 각각 741억원과 612억원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중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가총액 비중은 0.7%로 전월보다 0.1%p 감소했다.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8조4633억원으로 무려 전월보다 4.2% (3431억원)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5조7725억원에서 6조856억원으로 3131억원(5.4% ↑) 증가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2조3477억원에서 2조3777억원으로 300억(1.3%)이 늘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농기센터, 농업인 강사 배출 7월부터 신규 농업인 교육 투입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농업인강사 양성 교육'을 마무리하고 15명의 농업 전문 강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3일부터 이날까지 총 10회, 40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단순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강의 스피치 기법, 기술서 작성, 교안 제작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열린 강의 시연회에서는 교육생들이 직접 강단에 올라 블루베리 접목 기술과 로컬푸드 매출 증대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영농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전형 강의 역량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농업인 강사들은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신규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에 현장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 발굴과 강사 양성 과정을 확대 지역 농업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시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현장의 생생한 사례가 교육 콘텐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농업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임경준 회장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와 소통... "맞춤형 세정 지원"

채납관리단 운영 등 설명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임경준 회장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레미콘, 식자재, 슈퍼마켓 등 협동조합 이사장들을 통해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부 애로사항을 듣고 국세행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회장은 "최근 지역 기업들이 중동사태의 여파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적극적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중동사태 극복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유예, 광주·전남 중소기업 표창 확대, 중소기업 결산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중동사태 장기간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과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제채납관리단·국제외수입채납관리단 출범, 간이과세 배제기준 전면 정비 등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나 중점 검증항목 사전공개 등 세무조사 개선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어촌공사, 지역 4개 대학과 AI·정보보안 협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목포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 4개 대학과 인공지능(AI)·데이터·정보보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인중 사장을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 임기철 총장, 국립목포대학교 이상찬 대외협력부총장,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사는 광주·전남 지역 4개 대학과 함께 인공지능·데이터·정보보안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정과 프로그램 운영, 자문단·협의체 등 전문가 공동 활동, 세미나·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보 교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인턴십·현장실습 지원, 관련 분야 공동연구 기획과 홍보 협력 등이 담겼다.

김인중 사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들과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 정보보안 분야에서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데이터·정보보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상생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가운데)이 지난 11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손보 광주총국, 1분기 'TOP CLASS' 시상

남광주·북광주·대촌농협 그룹별 1위 선정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은 최근 농협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 주관으로 '2026년 1분기 TOP CLASS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TOP CLASS" 시상식은 광주지역 농·축협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분기별 우수한 사업 성과를 거둔 사무소를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시상식에서는 남광주농협(조합장 이영종),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 대촌농협(조합장 이원형)이 각각 그룹별 1위에 선정됐다.

수상 사무소들은 농업인과 고객 수요에 맞는 보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인 고객 관리와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익우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 실익 증대와 고객 만족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은 최근 농협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 주관으로 '2026년 1분기 TOP CLASS 시상식'을 개최했다.

외식비 역대 최고...가공식품 소비 양극화

식품 소비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외식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가공식품 소비는 건강 지향과 간편식 중심으로 뚜렷하게 재편되고 있다. 반면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식품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어 가계의 먹거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국가데이터센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91만 1773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지출을 반영한 실질 식품 소비지출은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분을 견어내면 먹거리 소비량은 줄고 있다는 의미다.

△외식비 48.9%...밥상 절반 '외부' 식품비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8.9%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는 44만 5700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1년에는 이동 제한과 거리두기 여

실질 식품소비 감소...명목 증가는 물가 탓

파로 외식 비중이 42%대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신선식품 비중은 21.5%로 전년 대비 0.2%p 줄었고, 가공식품 비중도 29.7%로 소폭 감소했다. 식품 소비의 무게중심이 가정 내 조리에서 외부 식사로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하다.

가공식품 세부 분류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유지방 지출액은 전년 대비 22.8% 급증했고, 건강보조식품은 10.8%, 커피 및 차는 6.0% 늘었다. 연근은 이를 건강 지향 소비 트렌드와 함께 간편식 확대에 따른 조리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빈도는 줄었지만, 요리할 때는 더 좋은 식재료와 기를 쓰려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30대 이하 1인 가구 '외식비 70%'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 패턴 차이도 두드러졌다. 30대 이하 1인 가구의 경

우 외식 비중이 무려 70.8%에 달했다. 이들의 식품비 중 신선식품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빵과 과자, 음료, 즉석·동결식품 등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식품에 지출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60대 이상 1인 가구다. 이들의 외식 비중은 32.7%로 낮고, 신선식품(33.7%)과 가공식품(33.6%) 비중이 고르며 높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건강보조식품(14.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조미식품과 유가식품 구매도 활발했다. 집에서 요리해 먹는 전통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에 신경 쓰는 소비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곡물·조미·유지방의 비중이 높고, 젊은 층일수록 빵·과자·음료·주류의 비중이 높았다. 즉석·동결식품은 30대 가구에서 4위를 차지했지만 60대 이

상에서는 10위로 내려앉았다. △저소득층은 집밥...영끌계수 31.0 '고공행진'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선했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외식 비중은 52.6%인 반면, 1분위(하위 20%) 가구는 36.1%에 그쳤다. 소득이 높을수록 외식으로 식비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1분위 가구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이 가공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영끌계수는 2025년 31.0을 기록했다. 2019년 28.5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수치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식품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연구진은 "2025년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소비는 건강·편의 지향이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도 가구의 연령,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식품 산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 이러한 가구 특성별 차이를 반영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해은 기자 nabi@gjdream.com